

한국 교회의 강단형태와 색상디자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pulpit and the color design of korean church

임 태 윤

경남대학교

이 논문은 경남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ntent

논문초록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II. 본론

1. 예배의 의미
2. 예배공간의 개념
3. 강단부의 개념

III. 한국교회 강단형태의 분석

1. 강단바닥의 분석
2. 강단벽면의 분석

IV. 강단형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V. 결론

임 태 윤

Lim, Tae-Yun

계명대학교 응용미술학과, 동 대학원졸업

임태윤 작품전 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마산, 진해, 통영 및 기업체CI다수제작

현/한국비주얼디자인협회의 부회장

한국일러스트레이터협회의 이사

한국교육미협(학회)회장

진해시 시정자문교수단

경남대학교 인터디자인학부 교수

논문초록

교회의 사명은 크게 예배와 교육과 친교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외적으로는 선교와 봉사를 들 수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배행위가 최근 들어 그 형태와 방법들이 초기 예배에 비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일례로 서울의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열린예배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열린 예배란 종래의 설교자 중심의 예배형식을 깨고 설교를 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강단에서 손뼉치고 유희하며 찬양하는 형식의 예배를 말한다. 이러다 보니 지금까지의 강단의 크기나 형태, 그리고 바닥재나 벽면의 색상등이 열린예배 형태에 부적합하게 설계되어있음이 당연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교회들을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구분하여 무작위로 몇 교회를 선정해서 개교회 강단에 나타난 디자인적 요소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교회 강단제작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회들이 20-30여년전 교회 건축당시에 제작되었던 강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강단분위기가 대체로 어두 침침하고 밝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원인으로는 강단바닥의 마감재가 주로 카펫이며 색상도 갈색과 적색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벽면이나 휘장색상 역시 적갈색 계열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인들이 원하는 색상은 하늘색계열의 밝은색 계열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배드리는 자들이 세상에서 온갖 아픔과 명든 가슴을 안고 찾은 교회의 전면부 강단이나 벽면이 어두 침침하고 밝지 못하다면 그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단의 형태나 색상이 바뀌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Keyword

Korean church

Pulpit

Worship

1. 서론

1. 연구목적

교회의 사명은 먼저 내적으로 예배를 들 수가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과 친교를 들 수가 있다. 또한 외적으로는 선교와 봉사를 말하는데 이를 보더라도 교회에서의 예배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행위를 위해 교회 건축이 시작된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3백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지상에 공식적인 교회가 설 수 있게 되었다. 그전 3백년간은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상에 설 수가 없었고 지하 무덤인 카타콤(Catacomb)에서 예배가 이루어 졌었다.

이렇게 처음 지상에 교회가 설립된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 물건을 팔고 사는 것으로 사용했던 바지리카 건축이 교회 건축의 시초가 되었으며, 그후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양식을 거치면서 AD1900년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교회 내부 강단부의 형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저 예배드리는 중심부에 목회자들이 설교에 편하게끔 디자인되었다.

본 논문은 예배도 이제는 설교자나 목회자중심이 아닌 참석신도들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금까지의 교단형태를 교인들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는 교회를 위해 새로운 강단

의 형태와 색상 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교회들을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구분하여 무작위로 몇 교회를 선정해서 개 교회 강단에 나타난 디자인적 요소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교회 강단제작에 도움이 되게끔 연구했다.

응답자들의 나이 및 성별과 강단색상과의 관계, 교회 출석 년도와와의 상관관계, 원하는 예배형태 등 10여개 항목을 통해 교인들이 바라는 강단의 이미지를 알아보았다.

II. 본론

1. 예배의 의미

강단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예배의 참다운 의미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예배란 영어로 Worship이며 사전적인 의미로는 존경하는 대상에 대해 공경의 뜻을 표시하는 일인데 종교에 있어서는 인간이 절대자에 대해 숭경심(崇敬心)을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종교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종교에 있어서도, 예배를 가지지 않는 종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예배의 양식과 정신은 각 종교에 따라 아주 다르고, 같은 종교에서도 시대와 민족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¹⁾

또한 예배란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실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

주 (1) 이성호 저, 성서대사전, (성서연구원, p.1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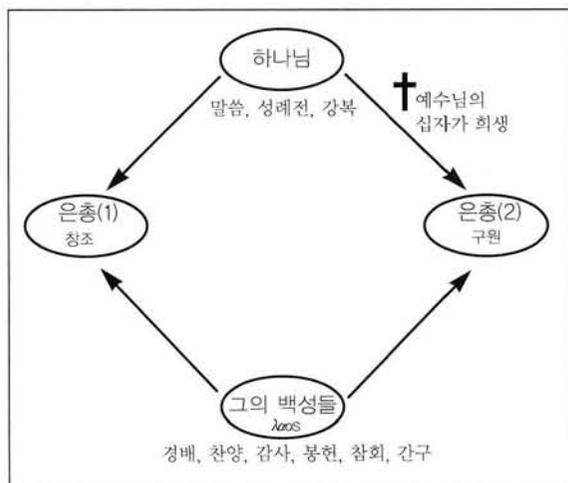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교류하고 거기에 응답해야만 한다.

여기서 예배자들은 단순히 예배의 순서에 따른 응답행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보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속마음에서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실감하게 되고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윤택한지를 경험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기독교 예배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 정의를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발생된 사건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그 응답의 행위에 있어야 할 내용은 경배, 감사, 찬양, 참회, 봉헌, 간구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례전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이 모든 예배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예배의 정의 (예배와 설교 핸드북, 장정복 1999, p.40)



2. 예배공간의 개념

지금까지 예배의 의미를 알아보았는데 이것은 예배라는 의식행위를 말하며 그 의식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공간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예배공간은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 때 신도들은 들판이나 지하묘지, 강변, 감옥, 배 등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렸다. 어떠한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독교인은 예배를 위한 장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성막, 성전, 회당, 성당 그리고 강당 등의 특별한 예배처소가 생겨나게 되었다.⁽²⁾

또한 성서적으로는 성막 건축을 위한 지시사항(출애굽기 25-40장)에서 예배공간에 관한 세 가지 요점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정교한 재료들은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달하는데 사용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리라는 강조의 반복(25:8, 29:45)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상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화한다. 셋째로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40:34-35)했다는 인식은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심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³⁾ 그러나 종교개혁이후 기독교의 예배공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스러운 장소나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식탁을 둘러싼 신도들의 공동체 속에 계신다고 믿게 되었고 지금의 신교에서도 예배당 내의 성스러운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예배의식행위가 자유로워지고 있다.

주 (2) 로버트 E. 웨버, 예배의 역사와 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p.18

주 (3) 황철호, 성서의 측면에서 본 예배공간의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 1990, p.7

3. 강단부의 개념

오늘날 교회가 예배공간변화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예배공간의 외형과 사용편리성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강단부의 형태나 크기, 색상, 심지어 성가대석의 위치결정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배의 중심이 설교와 성찬 그리고 세례라고 한다면 그것들의 의식에 행해지는 장소, 즉 설교대, 성찬대, 세례반의 3부분의 설계와 인테리어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단부의 구성요소로는 설교대, 성찬대, 봉헌대등 기타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이 모두 강단부에 배치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목회자의 예배 스타일이나 취향에 의해 자유로이 이동되어 질 수도 있다.

특히 요즘 서울의 몇몇 교회들이 열린예배를 통해 목회자와 성도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더욱 가까워진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배의 경우 지금까지 보아오던, 덩치 큰 커다란 설교대는 강단부의 중앙에 있어야하고 옆에 봉헌대가 놓여져 있으며 설교대 아래는 성찬대가 있는 그러한 경직된 강단부의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열린 예배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교대는 이동이 편리하게 제작되었으며 성찬대나 봉헌대는 아예 강단에서 보이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1) 설교대

구교에서는 의식을 중요시한 사제위주의 성소를 중심으로 교회공간이 구성되며 설교대는 교회의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 놓이게 되고 미사의 성찬전례가 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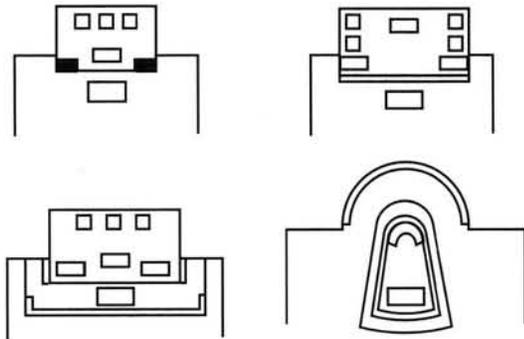
개신교에서는 개신교 교리에 따라 우상숭배의 요소를 제거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함이 중요시되며 따라서 교회 공간도 말씀에 적합하도록 구성한다.

설교대는 복음에 관한 말씀의 선포대 이므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위치와 높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개신교회의 설교 단 형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⁴⁾

〈그림 1〉 개신교 설교단의 유형



이들 그림의 나타난 강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A) 회중석 보다 높게하고 중앙 전면에 설교대를 배치함
- B) 설교단 중앙 깊은 곳에 제단을 두고(제단에는 십자가와 성서를 둠) 설교대와 성서 낭독대를 좌우측에 배치함
- C) 설교단을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의 2단으로 하고 낮은 단 주위에 성찬난간을 설치함.
- D) 설교단 후면 또는 측면에 세례조를 배치함.

주 (4) 조셉스타일스외, 한기선, 조동진, 김정철 공역
『현대교회건축계획』, 크리스찬 헤럴드, 1973, p.180

2) 성찬대

제단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특히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는 장소이며 성찬의식을 행함으로서 개신교회에서는 성찬대라고도 한다.

제단은 보이기 쉬운곳에 위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회중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직접 통할 수 있는 상대적 위치에 자리한다.

성단이 있는곳을 성소라 하며 구교에서는 성소가 중심이 되어 이곳에 제단과 성구대, 사제석과 성서낭독대 및 기타

십자가와 촛대등의 의식기구가 배치되며, 성구실은 지성소 뒤에 있는 경우와 좌우측에 두는 경우가 있다.

신교에서는 강단 중앙에 설교대를 놓았을 때는 예배의 중심이 상징적 단이 없이 십자가만 배치하거나 성찬대를 설교대 앞에 놓기도 하고 또는 제단을 성찬대로 대신하기도 한다.

제단은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상기하며 일체가 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결집되어지는 정신이 담겨져 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것과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⁵⁾

3) 봉헌대

봉헌대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넣는 곳으로 신교에서는 예배도중에 헌금함을 돌려서 그것을 단위에 올려놓는 곳인데 그것이 성경적이지를 못하다는 여론에 따라 최근에는 봉헌대를 교회입구에 두는 교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주 (5) 김원형, 현대교회건축의 강단부계획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p.31

III. 한국교회 강단형태의 분석

강단의 형태는 예배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배의 형태에 따라 강단 바닥의 색상이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강단 벽면의 형태나 색상 역시 예배의 형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형태에 대해 연령이나 성별, 신앙생활 한 해수와 관계없이 대부분 열린 예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40대 이전은 80% 가까이, 40대 이후는 75%선

에 머무는 것으로 보아 젊은층이 열린예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열린예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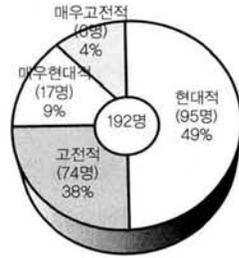
이러한 예배에 대한 선호도는 앞으로 전개될 강단의 벽면과 바닥의 형태나 색상 그리고 인테리어작업에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재 출석하고 있는 강단분위기는 응답자 192명중 현대적이라고 답한 것이 49%인 95명이며 매우 현대적이라고 한 것도 17명이나 되어 약 60%가까운 응답자들이 현대적인 분위기라고 답했다. 〈표3 참조〉

〈표2〉 원하는 예배형태



〈표3〉 출석하고 있는교회 강단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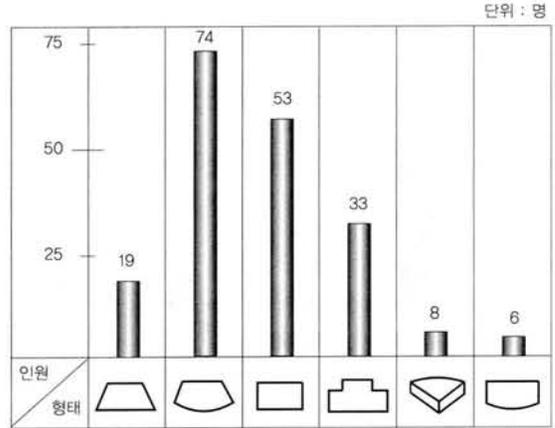


1. 강단바닥의 분석

1) 형태에 대한 분석

현재 출석하고 있는 강단의 바닥형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앞의 표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각이진 강단보다는 앞부분이 둥근 형태로 된 것이 약40%로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각진 형태로써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러한 형태의 강단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4〉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바닥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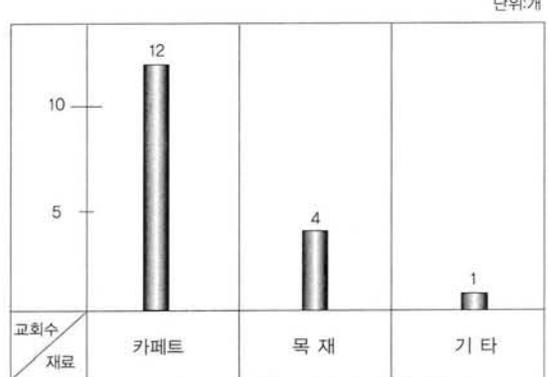
2) 바닥재료에 대한 분석

본 조사는 서울과 부산 울산에 소재 한 대형교회 17개 교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17개 교회 중 바닥에 카펫을 깔아놓은 곳이 12개 교회이며 목재로 된 교회는 4개로 나타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카펫을 바닥의 주재료로 삼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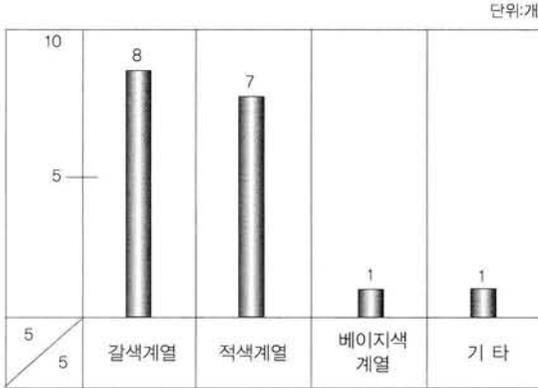
3) 색상에 대한 분석

바닥에 사용된 카펫이나 목재의 색상들은 갈색과 적색을 주로 사용해 밝은색 보다는 무거운 색상들을 선호하고 있었다.

〈표5〉 강단 바닥 마감재



〈표6〉 강단 바닥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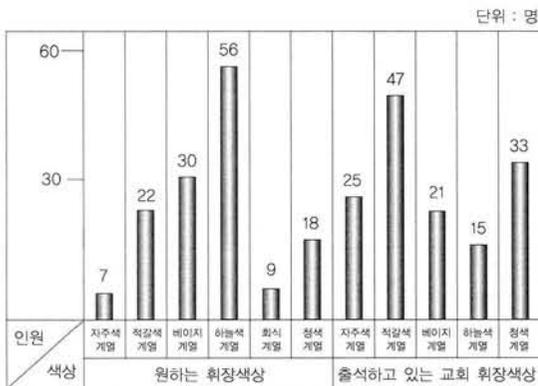
2. 강단벽면(휘장)의 분석

강단벽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강단의 안쪽부분을 말하는 곳으로 이는 신자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시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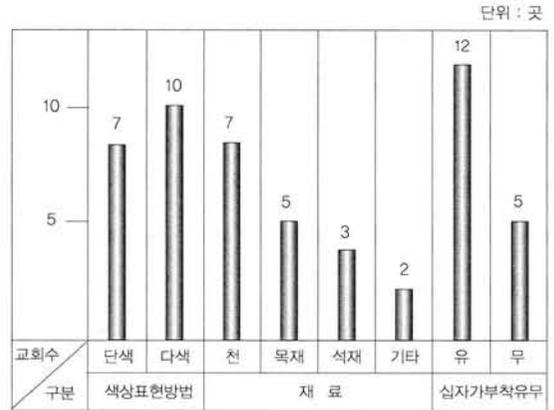
여기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휘장을 쳐 놓았으며 그 중앙에 십자가의 형상을 목재로 만들어 달고 뒤쪽에서 조명을 하여 은은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휘장을 없애고 심지어 십자가의 형상마저 없애버린 곳들도 있다.

이러한 시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단 벽면에 대해 몇 가지 조사한 결과이다.

〈표7〉 원하는 색상과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 휘장색상



〈표8〉 색상 표현 방법, 재료, 십자가 부족 유무



IV. 강단형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먼저 강단바닥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형태에 있어서 〈표4〉에 나타난 것처럼 앞면이 직선으로 처리된 것보다는 곡선으로 처리되어 각종 행사에 활용이 편리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러한 형태로 제작된 교회는 전체의 39%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직선으로 처리되어 예배의식 및 각종 행사시 활용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단바닥의 마감재로는 〈표5〉에서 보여 주듯이 대부분이 카펫으로 처리했으며 몇몇 교회에서만 목재로 처리하여 아직까지 종래에 사용하던 카펫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카펫의 색상 역시 〈표6〉에서 나타난 것처럼 갈색과 적색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 역시 새로운 인테리어 재료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셋째 벽면 휘장 색상에 있어서 〈표7〉에서 보여 주듯이 자주색과 적갈색 계열이 5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둡게 느껴지고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매우 무겁게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응답자들이 현재 출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강단 분위기가 현대적이라고 했는데 그 현대적이란 용어의 개념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이 말하는 현대적이란 종래의 벽면을 그대로 두고 첨단화된 컴퓨터나 앰프와 멀티비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현대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넷째 벽면 마감재 역시 <표8>에서 보는바와 같이 천이 대부분이며 다음으로 목재, 석재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예배공간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의식공간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의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사회의 각종 공연장과 같은 무대연출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벽면 마감재도 더욱 다양하고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강단의 형태에 있어서 종래의 직선마감을 탈피하고 새로운 예배형태에 따른, 보다 활용이 편리한 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미 언급했듯이 열린 예배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열린 예배를 위해서는 목회자중심이 아닌 예배참여자 중심의 강단이 필요하다.

<그림3>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강단



서울의 몇몇 교회에서는 열린 예배시간에 목사님도 아주 간편한 평상복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의 경직된 예배형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새로운 예배형식으로 젊은이들 그리고 초 신자들에게는 매우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예배형식에 필요한 강단이란 하나님께 복 치고 장구 치며 몸짓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공연중심의 강단을 말하며 앞으로 이러한 강단형태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둘째 강단바닥의 마감재료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카펫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색상 역시 갈색이나 적색계통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건축자재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으며 특히 바닥재의 경우 제조 회사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 제작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래의 카펫은 먼지와 냄새 그리고 공연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마루와 같은 자연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건강상 좋으며 공연시 미끄럼효과나 뒹뒹기 등 자유로운 율동표현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색상도 좀더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이 심리적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라색이나 자주색은 그 연상 감정에 있어서 신비롭고 우아한 것도 있는 반면 불안, 흥분, 공포 등으로 마음에 평화를 얻기 위해 예배당을 찾은 성도들에게는 썩 좋은 색깔은 아니다. 그래서 <표7>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은 sky blue나 beige색 계열의 밝은 색깔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벽면 색상에 있어서도 강단바닥과 마찬가지로 갈색과 보라색계열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강단벽면은 신자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포인트로서 예배에 있어서는 중요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공간이 대부분 갈색과 보라색계열로 치장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무거워지며 침울해 지기 쉽다.

또한 휘장 재료들 역시 천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한번 장식해 놓으면 몇 년 동안 세탁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 그래서 보라색이나 갈색계열이 좋을지는 모르나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인테리어 재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러한 구 시대적 사고로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벽면 색상이 밝은 색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천으로 된 것은 새로운 소재로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대상황에 맞추어 몇몇 대형교회들이 전면에 멀티비전을 설치하여 예배효과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하니 만치 멀티비전은 아니더라도 싸고 질 좋은 건축 마감제로 예배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대부분의 교회들이 20-30여년전 교회건축당시에 제작되었던 강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강단분위기가 대체로 어두 침침하고 밝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예배분위기가 침체되고 활기차지 못하게 되어 예배드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의 각종 공연무대는 나날이 새로운 인테리어 자재들로 새롭게 장식되어 교회는 교육뿐만 아니라 예배공간마저도 시대에 따르지 못하고 낙후된 곳이 대단히 많다. 이제는 강단바닥도 권위의 상징보다는 교인들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낮추어야 하며 새롭게 생산되고 있는 질 좋은 자재로 바꾸고 형태도 공연중심의 열린 예배형태에 맞게 넓고 기능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강단벽면 역시 대형교회처럼 멀티비전을 설치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치의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용된 재료들이나 색상을 현대식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벽면 휘장색상은 대부분 자주색계열이나 적색계열로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 비해 교인들이 원하는 색상은 하늘색이나 베이지색 계열로 밝은 색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배드리는 자들이 마음에 기쁨을 안고 돌아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온갖 아픔과 명든 가슴을 안고 찾은 교회의 전면부 강단이나 벽면이 어두 침침하고 밝지 못하다면 그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 질 것이다. 물론 교회의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선포가 목적이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강단의 형태나 색상이 바뀌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참고문헌

1. 이성호, 성서대사전, (성서연구원 2000)
2. 제임스F, 화이트저, 김 석한역, 개신교예배 1997
3. 아가페 성경사전 편찬위, 아가페 성경사전 (아가페출판사 2000)
4. 장정복, 예배와 설교 핸드북 (홍성사, 1999)
5. KBS, "색채 I" 한국색채 연구소(KBS문화사업단, 1994)
6. 김학성 편저, 디자인을 위한 색채(조형사, 1988)
7. 한선희, 한국 신교회의 예배형태에 따른 강단계획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1993)
8. 김원영, 현대교회건축의 강단부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1990)

